

마늘값 하락에...전남 재배면적 최저

통계청 작성 이래 41년만에
지난해보다 1551ha 29% 줄어
양파 재배면적은 12.7% 증가



전남 마늘 생산량은 전국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마늘 값이 하락하면서 올해 전남 마늘 재배면적이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4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가격이 크게 올랐던 양파 재배면적은 730ha(12.7%)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3775ha(1ha=1만㎡)로, 지난해보다 29.1%(-1551ha) 줄었다.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 1980년(8327ha)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41년 만에 가장 작다.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 2017년 6346ha 이후, 2018년 6030ha, 2019년 5803ha, 2020년 5326ha, 올해 3775ha 등 4년 연속 줄고 있다.

올해 전국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4.4% 줄어든 2만1716ha로 집계됐다.

지난해 생산량은 7만437t으로, 경남(9만7511t), 경북(8만3020t)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격 하락과 장기적인 마늘 재배면적 감소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마늘 도매 1kg 연평균 가격은 5551원(2018년), 4255

원(2019년), 3767원(2020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는 490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광주지역 마늘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9.6%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양파는 올해 전남 재배면적이 6473ha로, 지난해보다 12.7%(730ha) 증가했다. 전국 재배 면적 역시 1만8014ha로 전년보다 22.8% 늘었다.

전남 양파 면적은 지난 2018년 1만1327ha, 2019년 8467ha, 2020년 5743ha로 2년째 줄다가 올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45만2737t에 달하는 양파가 생산됐는데, 전국 생산량(117만t)의 38.8%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양파 도매 1kg 연평균 가격은 604원(2019년), 1071원(2020년)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1850원까지 뛴 상태다.

지난해 광주에서 조사된 양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3%로, 지난 2003년(81.9%)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바나나 후속시설 등 제주도 아열대 선진지 방문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3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제주도 아열대 농산물 재배·유통 선진지를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제주 김녕농협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신축 바나나 후속시설과 ㈜위트풍키 농업회사법인의 재배·후속시설을 방문했다.

전남본부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아열대 농산물이 신소득작목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나나 후속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아열대농산물 연구기관

및 재배시설 현황 파악 ▲아열대농산물 재배·유통 현황 조사 ▲고품질 바나나 생산을 위한 바나나 후속시설 운영현황 파악 ▲바나나 재배농가 재배 및 후속기술 공유 ▲행정과 농협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전남농협은 젊은 청년농들의 신규 농촌 유입을 견인해 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자 아열대 농산물을 육성하고 있다"며 "행정과 농협간 협업을 강화, 아열대 농산물이 신소득 작목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도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지난 23일 제주 김녕농협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바나나 후속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착한 장바구니' 사용으로 환경 지키고 농산물 애용



강형구(왼쪽) 농협 광주본부장이 지난 23일 열린 '금융 직거래장터'에서 지역 농산물 구매 고객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직거래장터서 홍보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매주 여는 '금융 직거래장터'에 자연을 지키기 위한 '착한 장바구니'가 등장했다.

광주본부는 지난 23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주차장에서 열린 올해 두 번째 직거래장터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나눠줬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엔(N)클럽이 참여했다. 이들은 직거래장터 고객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며 탄소저감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강형구 본부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맞춰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장바구니 사용으로 탄소발생을 줄여나가 환경도 지키고, 지역 농산물도 애용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산란닭 사육수 전분기보다 33만마리 감소

계란 4월 수입물량 4000만개로

올해 1분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영향으로 전남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전분기보다 6.8%(33만마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1일 기준) 전남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453만6684마리로 전분기(2020년 4분기) 보다 6.8%(-33만2499마리) 감소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4일 영암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전분기 대비 감소율은 장흥과 무안이 33.3%로 가장 높았다. 올해 장흥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1만마리로 전분기보다 5000마리 줄었고, 무안은 18만4761마리 줄어든 36만9739마리를 기록했다.

이어 담양(-16.4%), 해남(-14.7%), 순천(-10.8%), 나주(-9.6%), 함평(-6.1%), 영암(-2.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분기보다 마릿수가 늘어난 지역은 장성(28.6%), 영광(15.5%), 강진(7.5%), 보성(4.5%), 화순(3.1%), 곡성(2.7%) 등 6개 군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물가관계자회의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AI 확산 진정세에도 계란 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4월 수입 물량을 400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산란계 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6월까지 수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월 계란 수입 물량을 기존 2500만개에서 4000만개로 1500만개 늘렸다.

22일 기준 계란 가격이 30개당 7358원으로 평년의 5313원 대비 2000원 이상 오른 데 따른 조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

농협전남지역본부와 농가주부모임희망드림봉사단, 나주 남평농협은 지난 23일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동이용시설 폐쇄와 외출자제 등으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등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반찬으로 만들어 전달했다. (사)농가주부모임전남연합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주부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이들은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이 우수 농업인으로서 거듭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독거노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세탁과 청소, 밀반찬나눔 등을 펼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愼무공**, 육지에는 **鄭愼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2021 신간

2020년 신간!

인기리 판매중

최신간 양장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지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떠난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